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0. 9. Vol. 304

기획특집_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사랑을 선물하세요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효과 톡톡'

자체예산 총 55억원 투입, 군민 1인당 20만원씩 선불카드 지급
양양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마중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계경제와 지역경제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난 5월,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양양군은 자체 예산 55억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지역경제의 심각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긴급수혈의 방안이었다. 이렇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의 선불카드로 지급한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이 96.1%의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군민 이동편의 및 접촉 최소화를 위해 마을담당공무원 277명을 편성하여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각 마을별로 담당공무원 2~3명이 출장을 나가 1인당 2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그 결과 85%의 높은 지급률을 보였고, 8월 27일 현재 지급대상 26,627명 중 26,616명(2020.8.27.현재)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총 96.1%의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 양양군 관내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 어려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슈퍼,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의원 및 약국, 미용실, 학원 등 지역 내 카드가맹점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지역 내 상권에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 관내 집중소비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덕에 밤낮없이 썰렁했던 양양의 시내는 생기가 돌았다. 식당에는 긴급지원금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고, 좀처럼 왕래가 없던 양양전통시장과 마트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양양군은 청정지역을 자랑하며 강원도 18개 시 · 군 중 유일하게 관광객이 늘어난 지역으로 손꼽힌다. 서핑의 성지답게 해수욕장 등에는 많은 서퍼와 관광객으로 연일 북적인다.

이에 철저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청정 양양의 이미지를 잘 지켜나가면서 착한소비로까지 이어져 양양군의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양양소식
Vol. 304

CONTENTS

희망양양

04 **기획특집_**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사랑을 선물하세요

07 ISSUE & PEOPLE_ 양양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10 **마을가는 길_** 양양읍 감곡리

13 **그 옛날 양양 그리고 지금_** 양양읍 모습

14 **맛있는 양양여행_** 전라감사도 탐할 양양 서퍼 음식문화 거리

의기양양

16 YANGYANG NEWS

20 **의정소식_**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동해북부선의 종착지 양양역

열린양양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28 **공익광고**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군

양양소식 · 304호

| **발행일** 2020년 9월 4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ssugi0129@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사랑을 선물하세요!

양양의 특색 있는 선물세트와 함께 즐거운 한가위를

제2그린농공단지

명절의 설렘과 즐거움을 느끼기에 올해는 참으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심각한 사태를 보이면서, 더욱 긴장되고 피로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한가위에 코로나19로 지친 서로에게 좋은 선물을 해보면 어떨까요?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에 위치한 제2그린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양양오색한과(주), 네오팜, 대솔 영농조합법인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세트를 만나봅니다.

대통령의 선물, 역시 명절엔 한과
국내산 재료로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_ 양양오색한과(주)

양양오색한과(주)는 1996년부터 고유의 전통 식품인 한과의 계승과 발전에 앞장서며 건강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향토기업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하여 전통방식 그대로 제조한 다양한 한과 제품은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수출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초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설 선물 품목으로 '양양한과'가 선정되면서 지역 내 한과업체들과 함께 상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양양오색한과(주)의 제품은 유탕용 기름 관리 기술을 통해 한과 특유의 기름 냄새를 없애고, 고유의 맛과 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급스러운 패키지 구성으로 명절 선물로서의 퀄리티를 높였다.

인삼 한 뿌리가 통째로! 건강식품의 새로운 패러다임
식품기술사가 직접 만드는 건강식품 제조회사_ 네오팜

2006년에 설립된 네오팜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활용해 건강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식품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김종관 대표가 직접 원료를 엄선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2013년 출시한 자체 브랜드 '네오보감'은 '네오(새로운)'와 '보감(동의보감)'의 합성어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가꿔주겠다는 네오팜의 비전을 담고 있다.

'네오보감'은 양배추, 노루궁뎅이버섯, 산수유, 아로니아, 석류, 블루베리, 수삼 등을 원료로 제조한 10여 종의 건강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종합몰 등 온라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네오보감'의 대표상품인 '진삼한뿌리'는 금산에서 재배한 3~4년근 수삼 한 뿌리가 별도의 가공 없이 작은 유리병에 통째로 담아 원료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산삼배양근추출액, 영지버섯, 대추 등을 첨가해 영양을 높여 명절용 선물로 제격이다.

가을의 선물 송이, 달콤하게 향긋하게 즐기다
국내 유일한 자연송이 가공업체_ 대솔 영농조합법인

대솔 영농조합법인은 2003년부터 국내산 자연송이 유통 및 수출과 자연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생산해 온 기업이다. 자연송이를 활용한 식품제조와 관련해 9건의 발명특허를 등록한 국내 유일한 송이 가공업체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솔 영농조합법인은 장기간 보관할 수 없고, 특정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자연송이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자연송이를 원료로 한 간편죽, 장아찌, 고추장, 과자류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소비자들이 국내산 자연송이를 보다 간편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데 기여하였다.

그중에서도 산꿀자연송이는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귀한 분께 선물하기 좋은 제품이다. 산 속 송림에서 채취한 자연송이를 벌꿀에 재워 숙성시켜 벌꿀의 달콤함과 송이의 깊은 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글 · 사진 : 편집부〉

검색창 양양몰 ▼

코로나19의 안전거리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방역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보건소의 가장 큰 역할은 군민들의 건강 예방 교육이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당뇨 혈압 등 생활 건강에 대해 교육하고, 군민 대상의 금연 교실, 당뇨 교실 등을 운영하며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보건소는 지역의 안전 교두보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 · 계도 활동과 방역, 검사 등 안전한 양양군을 위해 양양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의 팀원들은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전담을 맡은 감염병관리팀의 분주한 일상을 만나본다.

8월 중순 코로나19, 또다시 위기로

3월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으로 위기를 넘기는가 싶었지만, 지난 8월 14일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세 자리가 되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17개 시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그동안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해 시행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8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사람들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전파 고리를 끊지 않으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처럼 위중한 시기에 양양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박광수 담당도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저는 지난 1월 말부터 매일 아침 8시 30분 총리주재 회의에 군에서는 부군수를 필두로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는 예방 방역을 하느라 무척 힘들죠. 그래도 청정 양양을 지켜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7, 8월 피서철이 되면서는 더욱 긴장되네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중에도 긴장된 모습이다. 피서철이 되면서 양양 공항은 국내 노선이 확대돼 피서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서핑을 하기 위해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그만큼 위기감도 커졌다. 매일 공항과 버스터미널, 시장에서 소독 및 방역을 하는 등 4명이 전담팀으로 움직이며 양양군의 예방과 방역을 맡고, 진료소에 3명이 한 조가 되어 매일 검사 실시, 방역 2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방역 위생 물품들을 포장해 전달하는데 김예진 주무관은 세대별로 보낼 방역물품들을 점검하느라 분주하다. 팀원 중 김왕수 주무관은 방역 담당으로 현장에 나가 있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이다 보니 더더욱 방역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소 안에서 주민 계도 등 민원을 담당하는 곽정순 주무관은 환자 발생 시 처리 등 현장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최일선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소는 예방과 검사, 방역 등을 위한 업무처리만으로도 바쁜데, 민원은 끝도 없이 발생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불법노동자가 강릉인력사무소를 통해 현남면 공사현장에 와서 일을 하는 사례도 발생해 강릉경찰서, 속초경찰서, 강릉보건소, 양양보건소 등 4개 기관이 공조해 행정력을 투입하는 등 보이지 않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녹초가 되곤 한다.

개인위생과 공공 방역으로 안전하게

청정 양양, 안전한 양양이라는 사실 덕분에 그동안 양양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은 자부심으로 더욱 매진해 왔다. 그 어느 지역도 안전할 수 없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군민들이 개인위생 수칙을 잘 이행하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반드시 쓰는 것을 강조하며, 보건소의 예방 방역 활동으로 극복해 가겠다고 김수열 양양보건소장도 다짐을 밝힌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령인구가 많은 양양군에서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수칙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마을마다 함께 식사하며 시원하게 보내던 마을회관을 갈 수 없으니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크다. 아주 무더울 때는 더위를 피해 마을회관을 찾지만, 외지에서 자녀들이 다녀간 경우라면 2~3일 동안은 마을회관에 오지 않기를 실천하는 등 촘촘하고 세밀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오랜 장마 뒤에 폭염이 이어진 8월에, 폭염 속에 선별진료소를 지키던 보건소 직원 3명이 탈진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두가 개인위생에 주의해야 하고, 공공 방역에 애쓰는 양양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게도 건투를 빈다.

〈**글 · 사진 :** 편집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양양읍 감곡리

역사와 전통, 감동이 있는 열두감동골
상부상조 ·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주민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따뜻한 마을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요즘이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 그 뒤를 바짝 따라온 폭염,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의 짙은 그림자. 모두에게 고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인생에 단맛이 필요한 순간이다. 문득 마을 이름에 '달 감(甘)'자가 들어가는 동네가 떠오른다. 주민들의 인심이 후하고 이웃 간에 정이 넘친다는 그곳에서는 왠지 쓰디쓴 마음도 달게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삶이 팍팍할 때마다 떠오르는 고향의 풍경처럼, 그곳에 감곡리가 있었다.

골짜기마다 사연이 가득한 열두감동골

양양군청에서 북쪽으로 3.8km 지점에 자리한 감곡리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버스가 다니지 않을 만큼 외진 동네로, 양양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벽촌(僻村)으로 통한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촌마을이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고 귀를 기울이면 다른 마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다.

감곡리는 열두 개의 골에 각각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어서 '열두감동골'이라고도 불린다. 소를 만 마리나 길렀다는 소만이를 비롯해서 큰말, 함지골, 대산터, 안말 등 골짜기마다 흥미로운 유래가 전해지고 있어 그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갈 것만 같다.
특히, 감곡리라는 이름에는 조선시대 7대 왕인 세조 임금의 일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1466년 병을 고치기 위해 양양 낙산사로 향하던 세조 임금이 우연히 이곳의 샘물을 마시고 물맛이 달다 하여 이 마을을 '감천(甘泉)골'이라고 칭했는데, 1894년 이후부터는 마을 이름을 감곡리(甘谷里)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마을회관 뒷자락에는 세조 임금이 물을 길어다 마신 샘터가 보존되어 있다. 상수도가 생기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생활용수를 얻었다.

감곡리 마을의 옛이야기는 현재를 사는 주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 감곡리 주민들은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감천수 복원, 마을 이름 유래집 발간 등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발굴하여 마을의 특색을 살리고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귀농 · 귀촌인이 마음 놓고 정주하는 열린 마을

감곡리는 현재 60여 가구 12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논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인구 고령화로 농업종사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8년 사이 이곳에 터를 잡은 귀농 · 귀촌인들이 늘어나 특수작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등 젊은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양양살이 8년 차인 박영관 씨(68세)는 감곡리의 귀농 · 귀촌 1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전라남도 담양이 고향인 그는 감곡리가 어린 시절 느꼈던 고향의 따스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말한다.

"10월에 이사를 왔는데, 제가 가을걷이를 못 했다고 마을 분들이 고춧가루나 산나물, 직접 따온 밤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어요. 게다가 귀농 · 귀촌인들 사이에서 관행이 된 발전기금도 받지 않았죠. 정말 순박하고 따뜻한 정서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영관 씨는 현재 감곡리 1반장으로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마을 일에 앞장서고 있다. 어떤 조건이나 편견 없이 이주민을 마을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을주민들의 열린 태도는 귀농 · 귀촌인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주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기 이장(63세)은 마을 내 귀농 · 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마을 주민들도 고령화되고 농촌 세대가 줄어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면서 주민들과 융합이 잘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동'이 있는 감곡리

감곡리는 박사나 공직자 등 걸출한 인재들이 여럿 배출된 마을로도 유명하다. 노재옥 前노인회장(86세)은 감곡리에는 각 분야의 훌륭한 인재들이 다 있다며 자랑스러워한다. 자손들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공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손이 딸린 부모가 논밭 관리를 미처 다 할 수 없어서 감곡리에는 유난히 잡초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그 어떤 농사보다 자식 농사에 정성을 쏟았던 감곡리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들은 대처에 나가 제 역할을 잘 해내는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키웠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감동은 '사람'에서 나온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지만, 감곡리에서는 여전히 '사람'에서 위안과 힘을 얻는다. 마을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기쁜 일을 함께 축하하고, 해결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한다. 이기봉 現노인회장(82세)은 많이 들어야 아는 것도 많아진다며 듣는 게 없으면 오히려 불평만 쌓이니까 노인회 회원들에게도 마을 모임에 꼭 참석하라고 당부한다.

"마을에 일이 생겼을 때 젊은이, 노인 구분 없이 무조건 다 모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문제도 잘 해결되니까요."

지난해에는 감곡리 노인회가 '우수 경로당'으로 선정되는 경사가 있었다. 노인회 회원들 중심으로 200평 밭에서 채소를 공동 경작해 경로당의 식자재를 마련하고, 마을 내 독거노인을 돕는 일에 앞장서면서 상생과 화합을 이끌어 낸 공로로 대한노인회양양군지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마을의 가장 웃어른들이 솔선수범하니, 아랫사람들도 이를 본받아 마을 일에 열심이다. 매년 폐품을 수집해서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공동 풀베기 작업과 꽃가꾸기를 통해 마을 환경을 정비한다. 마을 주민이 기증한 감나무에서 수확한 대봉 감을 판매해서 겨울 동안 나눠 먹을 김치도 담근다. 마을 청년회가 주축이 된 감사모(감곡리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매년 추석마다 화합한마당 노래자랑을 마련하고, 애향회는 마을의 큰 행사에 후원과 협찬을 아끼지 않는다.

신구세대가 힘을 모아 감곡리를 나날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고 있다.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수레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법이다. 서로에게 기꺼이 한 쪽 바퀴가 되어주고, 정겹게 상부상조하는 감곡리 사람들의 모습에 코로나19로 시들했던 마음이 '감동'으로 일렁인다.

〈**글 · 사진** 편집부〉

그 옛날 양양 그리고 지금

빛바랜 오래된 사진을 보며 느끼는 추억의 아날로그 감성, 그땐 그랬지~

1966년 양양면 전경

강원도 양양부(襄陽府)에 관음굴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양양

1979년 양양읍으로 승격되기 전, 1966년 양양면의 사진입니다.
영동지역에서 가장 큰 젖줄인 남대천이 넓은 삼각주 평야를 이루고 기후 또한 온화하여 이 유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밀집된 선사문화의 보고이며 신석기 문화의 최고의 요람입니다.
'분단 1번지"라는 외세에 의한 비극의 현장에서 '통일 1번지'라는 정전 협정시 전세의 상승작용에 의한 지역적 통일로 인해 축복받은 천혜의 고장 양양.

2020. 8월 양양읍 전경

십 년 세월 속에도 강산이 변하는데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는 산과 강, 집과 길도 몰라보게 변해갑니다. 그 세월 속에 양양면은 양양읍이 되었습니다.

전라감사도 탐貪할 양양 서퍼 음식문화 거리

‘죽도 서퍼(Surfer)음식’

간혹 묻곤 한다. 양양에 먹을 게 뭐가 있냐고 말이다. 내심 자랑이라도 할 심산心算에 메밀국수도 있고, 섭국도 있고, 물회도 있고, 장칼국수, 뚜거리탕도 있다고 하면, 단박에 그런 거 말고 란다. 이만하면 양양만의 특색이라 할 만하여 능히 권할 만도 한데, 속초처럼 뭐 그런 거 없냐고 재차 묻는다. 분명 장국음식처럼 뜨겁거나 물회처럼 차가운 양양의 국물음식 위주에 진부해진 식객들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미식적 욕구를 통하여 자기만의 ‘감성적이고 즐거운 행위’를 즐기려는 반론임을 익히 알고 있다. 요즘처럼 음식을 통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나만의 행복을 즐기려는 성향에 비추었을 때, 이러한 반론에 대항할 만한 새로운 다양성을 장착한 지역음식의 확산과 전파는 분명, 한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적 콘텐츠임에는 틀림이 없다.

전라감사도 탐貪할 양양의 서퍼 음식문화

옛말에 팔도八道 감사 중에 전라감사와 평안감사가 제일이라는 속담이 있다. 평안도는 여색女色으로 호강할 수 있고, 전라도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여러 음식을 다양하게 맛보며 즐거워했을 전라감사에 비유하여, 국물음식 위주뿐이라는 양양음식에 대한 애꿎은 편견과 타박이라면 양양은 감사監査자리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 이는 전통성과 향토성만을 강조하는 답습과 관행적 성향의 지역적 음식만으로는 전라감사처럼 다양한 음식을 통하여 자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려는 많은 미식가와 탐식가 그리고 여행자들에게 특성적 지역문화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요즈음의 반증이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관점의 정체기에 있던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를 최근 새로운 음식문화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국물음식 뿐이라던 원도심原都心 상권의 음식문화와 다르게 놀랍도록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놀이문화와 음식문화가 결합된 '죽도해변 서퍼 문화거리'에서 말이다. 지금까지의 양양 음식문화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오락娛樂'이 이곳에 있다. 보고,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유희遊戱적 서핑이라는 놀이문화와 함께 서퍼들의 스타일리쉬 하고 크레이시 하게 이국적인 음식에서 느껴지는 음식의 경험과 맛의 감성이다. 양양 음식문화의 판도가 달라지게 되면서 전라감사보다 '양양감사'가 제일이라고 할 만하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재벌 총수의 동산리 햄버거 사건(?)

최근 재벌총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수제 햄버거를 먹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2시간이나 기다린 큰 사건(?)이 있었다. 이 소식에 '정용진 버거'를 먹어 보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여전히 북새통인데, 뜻밖에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까지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음식문화 공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곳의 음식들은 국물음식 위주의 원도심 음식성향과 달리 테이크아웃 음식들이 주류를 이룬다. 카페는 물론 세계3대 스프 음식으로 유명한 태국의 똠얌꿍, 수제 버거류, 인도네시아 전통볶음밥이나 볶음면, 발리식 스테이크덮밥, 피자류, 파스타류, '인도의 치느님'으로 유명한 '탄두리' 같은 레시피가 색다른 음식들이다. 더욱이 밥집과 선술집을 겸한 영국만의 독특한 펍(Pub)문화를 양양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죽도해변 서퍼 문화거리'는 음식과 놀이문화의 특별한 공간적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들은 서로 연대하며 각각의 성향으로 적극적인 노출의 시각으로 맛과 향을 주저 없이 표현한다. 그래서 간혹 원도심原都心 음식문화와 달리 새로운 견해가 필요한 음식들도 있다. 하지만 굳이 음식과 맛이 주는 감성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아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음식의 경험은 이미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 유별나게 즐거울만한 양양의 새로운 음식문화 거리이다. 이 때문일까. 알고만 있었던 양양의 죽도竹島를 이제라도 죽도록 가보고 싶어지는 것 또한 본능적인 '탐식과 탐미의 욕구' 때문이 아닐까 싶다.

〈**글 · 사진 :**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양양뉴스
YANGYANG NEWS

강원도 1위 양양군, 출산장려금 혜택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출생아마다 출산축하금 100만원(1회)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첫째아의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는 '1년간 월 20만원', 셋째아는 '2년간 월 30만원', 넷째아 이상은 '3년간 월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1회의 출산축하금과 태아 출생시간에 따라 순위대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은 강원도 내 다른 시군보다 많게는 7배 이상 많은 것이어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해 출산 ·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 관광객 증가… 렌트카 업체 호황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서핑활성화, 코로나19 영향, 양양공항 노선확대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지역 렌트카 업체가 증가하였다. 양양지역은 현대관광렌트카, 글로리렌트카, 로또렌트카가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 카셰어링 1위 쏘카가 개소하였고, 지난 7월에는 독도렌트카가 차량 30대 규모로 신규 영업을 시작하며 현재 총 5개 업체에 등록대수는 93대가 운행 중이다. 올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관광객들이 국내로 발길을 돌리며, 양양지역의 관광객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군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렌트카 업체 신설 시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망 확충도 빠른 시일 내 강원도와 협의하여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도로개설 사업 9월 착공

종합운동장 인근 44번 국도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앞 7번 국도를 잇는 간선도로 개설 사업을 9월 착공한다.

이번 사업은 종합운동장 사거리 44번 국도(양양읍 청곡리 437-23)에서 철도 부지를 따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인근 7번 국도(양양읍 송암리 218-4)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2.035km(폭 15m)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개설되면 양양읍 연창 · 구교 · 청곡리 등에 밀집해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됨은 물론, 군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암 · 연창 · 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구(舊)도심으로 한정된 시내권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민 건강지표 수치 대폭 개선

양양군민의 흡연율, 비만율, 걷기실천율 등 건강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율은 2019년 17.2%로 전년도 21.7%에서 17.2%로 4.5% 감소하였고, 전국 18.6%, 강원도 19.2%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유병율은 2019년 전체 36.7%로 전년도 42.4%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걷기실천율은 2019년 전체 33.4%로, 전년 19.6% 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건강생활실천향상을 위한 양양군의 노력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버섯재배단지 조성으로 지역 명품 작목 육성

송이의 주산지로 알려진 양양 지역은 서고동저형의 해양성기후로 겨울철이 따뜻하고 여름철이 시원한 기후적 영향으로 다양한 버섯재배에 적합해 전국 최고의 버섯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군은 버섯재배의 단지화 · 규모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 및 버섯재배 희망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손양면 삽존리 79-3번지 일대 81,528㎡에 대규모 버섯재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다. 1단계로 삽존리 41,462㎡를 우선 조성하고, 상왕도리 40,066㎡는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본 계획이 수립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실시설계를 통해 2021년 3월경 착공하여 9월경 완공예정이며, 10월부터 관내 버섯재배 농가 및 귀농 · 귀촌자를 대상으로 토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돌기해삼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군이 돌기해삼을 적극 특화 육성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실현하는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남면 동산어촌계와 인구어촌계에 대해 2019년부터 5년간 연안어장내 적지에 해삼 서식공간을 조성하여 돌기해삼을 집중 방류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53만 마리를 11~12월 중 방류할 계획이다. 재원이 부족하여 어장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향후 종묘생산업체와 어촌계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5년 이내에 성과를 거두는 방안을 추진하여 돌기해삼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연안 마을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증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작년 50만마리 해삼종자 방류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100만마리 이상 방류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양양군 연안을 돌기해삼의 특화양식 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 구한 양양 '알리' 의상자 선정

지난 3월 양양읍 원룸 건물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율다셰프 알리아 크바르씨(29세)에게 의상자 증서(보건복지부)를 전달했다. 군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선정 신청을 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복지부가 지난 7월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알리씨를 의상자로 인정함에 따라 의상자 증서 및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또한, 불법체류자인 알리씨는 이번 의상자 지정에 따라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영주권을 신청했다.

양양군 공무원, 철원 수해복구 지원

양양군 공무원 50여 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피해 주택 등에서 수해복구에 일손을 보탰다. 지난 8월 12일 김진하 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과 살수차 2대 등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주택 안으로 밀려든 토사 제거, 뒤엉킨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피해 주민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또한 이날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성금을 모아 구입한 휴대용 가스버너 400만원 상당의 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군은 도내 수해 지역에 자원봉사단을 계속해서 파견할 계획이며, 8월 11일은 양양군 자원봉사센터 회원이 70명, 대한적십자사 양양군지회 20여명이, 8월 12일에는 양양군청 직원뿐만 아니라 양양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직원 14명이 철원군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전개 하였다.

양양군, 토종벌 옛 명성을 되찾다…2021년 1,500군 목표

양양군은 '19년도 자체사업을 통하여 저항성 토종벌 57군을 공급 하였고 '20년 강원도 시범사업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계통 증식보급 시범사업'을 통하여 '토종벌 연구회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 2년간 총 164군의 저항성 토종벌을 공급하였다

그 결과 2020년도 7월 기준 관내 토종벌 사육농가는 30호(624군)으로 2009년 이후 감소하던 토종벌 사육군수의 증가를 보였으며, 양양군은 꿀 생산량 증대에 맞춰 꿀 용기(도자기)를 지원, 2020년도 총사업비 115,300천원 투자하여 2021년 1,500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후 양양군은 관내 모든 토종벌을 저항성 토종벌로 교체 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의 지침을 완화하여 토종벌 관내 거래를 활성화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자체적 토종벌(꿀) 생산을 통해 양양연어 · 송이 한우와 더불어 양양의 특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 계곡 · 하천 등과 같은 여름철 휴가지 방역관리 실태 및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클럽, 노래방, PC방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유흥시설 43개소 및 종교시설 66개소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상시 점검하고, 종교시설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제한 및 경로당 취식을 금지시키고, 양양공항, 시외버스터미널, 양양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회 방역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양양군은 난임 조기검사 및 진단으로 치료 시기를 앞당겨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부부에 대하여 지원하되 2020년 6월 1일 이후 검사한 내역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전국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 검사 내역 및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여 6개월 이내에 양양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음식 · 숙박업소 환경개선 추진 완료

위생업소 편의시설 확충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식품 ·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양양군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이다. 2016년부터 시작으로 올해까지 5년 동안 일반 음식점 70개소, 숙박업소 83개소, 이용업 5개소 총 158개소를 추진하였다.
사업내용은 음식업소의 경우 조리장 개방, 화장실 남 · 여 구분, 객석(입식) 등, 숙박업소는 접객대 개방, 싱글 · 트윈침대, 조식 제공시설 등으로써, 업소 당 소요금액의 8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음식 · 숙박업 800만원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부담을 전년도 30%에서 20%로 줄이고 도비는 10%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해주었다.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개 안건 심의 · 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 · 개정안, 양양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특히,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균, 간사 이종석)에서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였고, 8월 24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다.

8월 27일 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귀선, 간사 김우섭)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의원 발의된 주요 조례안으로는,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이 양양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헌혈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위한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주민소득 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양양군 농어촌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을 심의하여 8월 31일 개의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 · 조례를 심의하였으며,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의원들의 소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군정질문 실시

8월 24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 57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종석 부의장은 우사와 그물건조장 같은 주민 기피시설에 관한 민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원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설해원CC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우리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우섭 의원은 최근 관광흐름이 집중되고 있는 인구, 죽도 등의 서핑지구의 해변환경 개선 및 주차장 확보, 쓰레기 처리대책 등 관광객과 주민 모두의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했으며, 코로나19로 방역과 감염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택철 의원은 전선 지중화 사업 등으로 인해 잘 정돈된 시내 경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통시장 주차장 타워와 남대천 주차장을 십분 활용하여 시내권 주정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쓰레기 무단 배출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환경저해가 심각함을 걱정하며 쓰레기 처리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고제철 의원은 종합터미널 이전과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전통시장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수립 이후 관광시설 확충 및 다양한 관광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봉균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색삭도 추진,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과 교육 · 중소기업 · 관광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리한 사업추진 보다는 우선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귀선 의원은 숨은 맛집 선정이나 향토음식 개발 등 먹거리 개발과 연계하여 현 관광흐름에 맞는 소규모 체류형 관광환경으로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버섯재배단지 조성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향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버섯들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소비접근성을 향상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철원군 이길리 마을 찾아, 수해복구 지원

지난 8월 12일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철원군 이길리 마을을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진흙제거 및 가재도구 정리 등 수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의원들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보탬이 되고,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으며, 피해 복구가 조속히 되어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동해북부선의 종착지 양양역

1. 양양역 개통

동해북부선은 지금으로부터 83년 전인 일제강점기에 강원도 안변에서 양양을 잇던 철도 노선으로, 1937년 12월 1일 안변에서 양양까지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으나 완공하지 못하고 8 · 15해방을 맞이하였다.
당시 양양군 내의 역은 공현진역, 문암역, 천진역, 속초역, 대포역, 낙산사역을 지나 양양역이 종착역이었다.
※ 당시 낙산사역은 강현면 정암리 현 코레일연수원 자리 인접 북쪽에 있었다.

《 동해북부선 철로개설 현황 》

개설구간	개설연월일	개설거리	소요시간
안변 ~ 흡곡	1929. 09. 11	31.4km	0시간 58분
흡곡 ~ 통천	1931. 07. 21	29.6km	0시간 32분
통천 ~ 두백	1932. 05. 21	14.7km	1시간 13분
두백 ~ 장전	1932. 08. 01	17.5km	0시간 35분
장전 ~ 외금강	1932. 09. 16	07.8km	0시간 19분
외금강 ~ 고성	1932. 11. 01	10.4km	0시간 33분
고성 ~ 간성	1935. 11. 01	39.3km	1시간 10분
간성 ~ 양양	1937. 12. 01	41.9km	1시간 25분

2. 양양역은 동해북부선 최남단 종착역이었다

양양역이 개통되자 동해안 지역의 강릉, 삼척, 울진 등 양양 이남 사람들이 경성(서울)을 가려고 모여들었고, 금강산을 구경하러 가려는 사람들,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유학생 등으로 붐볐으며, 역사(驛舍:대합실) 주변에는 여관과 식당이 즐비했고 역 광장과 주변에는 항상 활기가 넘치는 장소가 되었다.
역 광장 앞의 현 7번국도(동해대로) 건너편에 위치하였던 당시 경찰주재소 옆에는 여러 동의 여관이 있었지만, 타지방에서 온 여행객들은 역 주변의 숙박시설이 모자라 양양읍내 여관에서 묵었다고 한다.
열차 운행은 오전 5시 양양역을 출발하는 첫 차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오후 4시, 오후 6시 등 하루 4차례 운행했었다.
당시 양양에서 생산된 목재도 양양역에서 반출되었으며, 양양광업소에서 채굴한 철광석은 기차에 실려 함경북도 청진제철소로 운송되었다 한다.
8 · 15 해방 후에도 철도는 북한 체제하에서도 계속 운행되었으며 6 · 25 한국전쟁으로 운행이 중단된 1950년까지 14년간 운행되어 오다가 양양역 역사(驛舍)를 비롯한 모든 철도 시설이 한국전쟁 당시 완전히 파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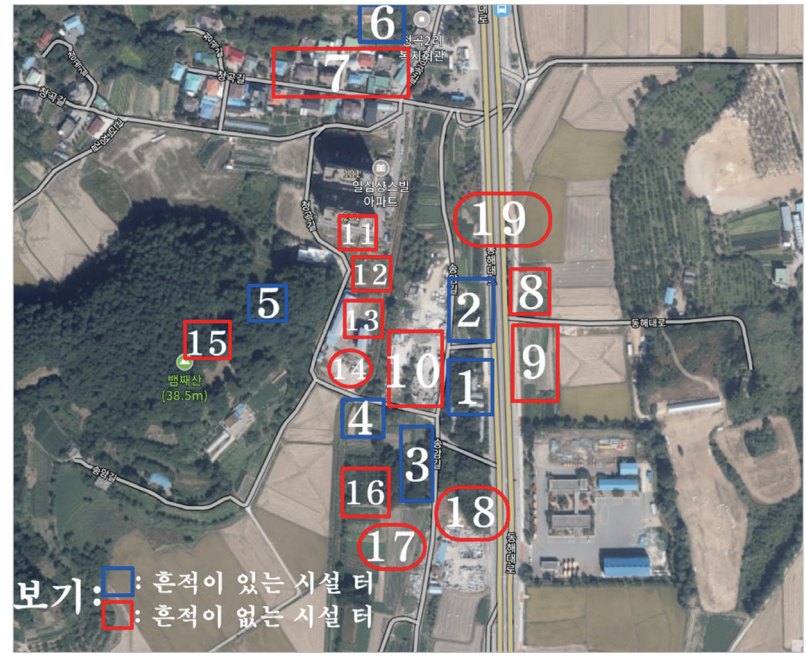
3. 양양역의 규모와 남아있는 자취들

1937년 12월1일 개통된 동해북부선의 양양역은 현재 역사(驛舍:대합실), 플랫폼, 관리사무소, 철광석 집하장인 조구통, 어름창고 등은 아직도 기초 시멘트 구조물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
양양역에 인접한 산(뱀째산)위에는 기차 운행당시에 사용하려던 약 140여 톤의 물을 저장 할 수 있는 물탱크시설이 아직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고, 양양광산에서 철광석을 실어 나르던 삭도(속칭:솔개미차)시설 탑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산 아래에는 삭도시설 사무소와 그리고 기차에서 온수를 사용하려고 물을 데우던 가마시설과 물을 용이하게 공급하기 위하

《 구간 운행요금 》

운행구간	운행거리	구 간 정차역	소요시간	운행요금	
				2등석	3등석
양양 ~ 원산	238.8 km	30역	7시간 35분	14원 50전	6원 50전
양양 ~ 안변	192.6 km	26역	6시간 35분	13원	6원
양양 ~ 간성	41.9 km	6역	1시간 25분	3원 30전	1원 50전

(1) 역사(驛舍:대합실) (2) 관리사무소 (3) 플랫폼 (4) 철광석조구통
(5) 물탱크 (6) 변전소 및 어름창고 (7) 사택 10동 (8) 경찰주재소
(9) 여관 3동 (10) 창고 여러동 (11) 삭도사무실 (12) 온수시설
(13) 급수탑 (14) 우물 (15) 삭도시설 (16) 기관고
(17) 기관차 돌리는 곳 (18) 석탄과 석탄재 야적장 (19) 목재야적장



양양읍 송암리

여 급수탑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옆에는 우물이 있었다. 증기기관차에서 사용하는 석탄 야적장과 석탄재 하치장이 있었으며, 우차(牛車)로 운반되어 온 목재 야적장이 있었는데, 이때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솔 딱지(소나무 껍질)를 벗기려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으니 당시 서민 가정의 어려웠던 연료 사정을 짐작케 한다.

역내에 주요시설인 기관차를 수리 점검하는 기관고(機關庫)가 있었으며, 양양역이 종착역이므로 기관차의 앞뒤 방향을 돌리는 회전대가 있었다.

단층 건물로 지어져 있던 양양역에는 역장을 비롯하여 선로반, 기관부 직원 등 100여 명의 인원이 근무했고, 청곡2리에는 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택도 10여 동이 있었으며, 역 주변에는 여러 동의 창고가 있었다.

글 · 사진 양양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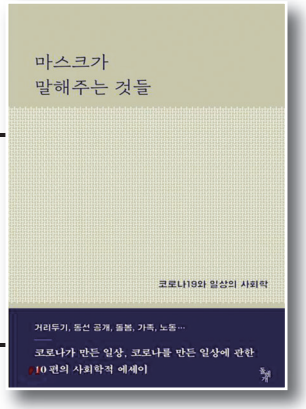
플랫폼 흔적 (1)

플랫폼 흔적 (2)

물탱크 시설

물탱크 입구 계단

이달의 책이야기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

공성식, 김미선, 김재형, 김정환, 박해남 저 외 5명| 돌베개(2020. 8월)

거리두기, 동선 공개, 돌봄, 가족, 노동…
코로나가 만든 일상, 코로나를 만든 일상에 관한
10편의 사회학적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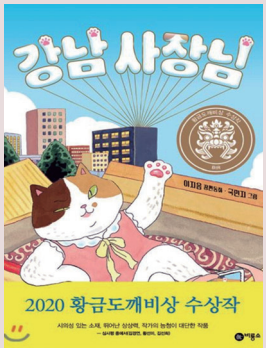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등 코로나19를 둘러싼 거대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화 · 의료 · 젠더 · 정치 · 노동 ·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학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코로나19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즉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근본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비대면과 재택근무, 동선 공개, 신천지, 돌봄노동과 여성, 가족, 노동, 민주주의와 모더니티의 문제까지 폭넓은 논의가 펼쳐진다. 올해 봄, 문화 · 의료 · 젠더 · 정치 · 노동 ·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학 연구자와 활동가 열 명이 모였다. 이들은 "사람들의 경험과 언어가 현재 상황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나아가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6쪽)침에도, 배제되는 목소리와 경험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즉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근본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그렇게 이 책에는 비대면과 재택근무, 동선 공개와 인권, 신천지와 청년, 돌봄노동과 여성, 가족과 노동 등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례들부터 민주주의와 모더니티의 문제까지,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을 바탕으로, 폭넓은 논의가 담겨 있다.

◆ 책 속 한 구절 ◆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 던진 과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이에 맞춘 규준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와 공간에 대한 획일화된 감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엎어진 김에 쉬다 간다는 식으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의 여유를 갖자는 것이 아니라, 여하한 노동을 자기 관리의 일부이자 역량의 문제로 환원하며 택배기사의 빠른 배송과 상대방의 회신을 독촉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다.

——「비대면」 중에서

양양교육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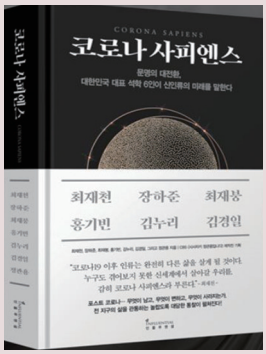
강남사장님

이지음, 비룡소(2020)

100만 유튜버 고양이 사장님?! 시의성 있는 소재에 귀여운 상상력

2020년 제26회 황금도깨비상 수상작. 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스타 고양이 '강남'을 사장님으로 모시게 된 지훈이의 특별한 아르바이트 체험기를 담은 동화로 심사위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특별한 소재"가 돋보이며 "상상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작가의 능청 또한 대단하다"는 평을 들었다.

유튜버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주목받는 '직업'이 된 지 오래다. 〈강남 사장님〉은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이미 성공을 이뤄 낸 고양이가 등장한다는 면에서 특별하다.



코로나 사피엔스

최재천, 장하준 외, 인플루엔셜(2020)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우리, 코로나 사피엔스를 위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류가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과거의 언어,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같은 위기를 이겨내기 힘들 것이라는 자성적 성찰이 대두하는 가운데 각 분야 대표 지성들이 대담한 인사이트를 내놓았다. 최재천(생태와 인간), 장하준(경제의 재편), 최재붕(문명의 전환), 홍기빈(새로운 체제), 김누리(세계관의 전복), 김경일(행복의 척도)이 그들이다.

글 · 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09/02 〈오! 문희〉
09/03 〈마이리틀포니 : 레인보우 로드 트립〉
09/09 〈돌멩이〉
09/10 〈뮬란〉
09/17 〈디바〉, 〈검객〉, 〈도망친 여자〉
09/23 〈승리호〉

※ 영화관사정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상영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코레일낙산연수원 (기간제)	5명	편의점 판매원 하우스키퍼, 청소원	시간협의	시급 8,590원
송이닭강정	4명	주방조리원	09:00~18:00 (주6일)	월190만원
대목바다마을 아파트	1명	아파트관리원 (청소,경비,설비 등)	격일근무	월210만원
양양군민약국	1명	의약품관리 및 환경정리	시간협의 (주6일)	월180만원
㈜교원 스위트호텔낙산	1명	룸메이드	08:30~17:30	월205만원
아라마크주식회사 (쏠비치 직원식당)	2명	조리보조원	교대근무	시급8,800원 (협의)
송도불향쭈꾸미	1명	홀써빙	시간협의	월200만원이상
㈜오션벨리리조트	3명	프론트 시설물관리	교대근무	월180만원이상
㈜신우그린 (설해원)	7명	골프장 코스관리	07:00~17:00	연2,500만원
청곡정미소	1명	정미소 및 축사관리	08:00~17:00	월180만원
커피에반하다 (양양공항)	3명	음료제조원 (점장1명,시간제2명)	시간협의	시급 8,590원 (협의)
강릉최가두부	1명	두부제조원	09:00~18:00 (주5일)	월180만원

"은퇴 이후가 걱정되십니까?"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ㅁ **가입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조기은퇴 후 소득공백이 발생한 중장년층의 소득창출 지원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가입가능 연령이 만 60세에서 55세로 완화됨

ㅁ **대상주택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기준1.5억원 미만 1주택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가능

ㅁ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일반 및 우대형),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일반 및 우대형)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동부지사 ☎033)660-4719

정보꾸러미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ㅁ 납세의무자
– 6월 1일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한 자
* 6월 1일 잔금지급 시 : 양수자
ㅁ 부과대상 및 납부기간
– 재산세(토지), 재산세(주택, 20만원 초과 시 7월 · 9월 1/2씩 부과)
– 납 기 : 9. 16. ~ 10. 05.
ㅁ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가상계좌이체
–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민원실 신용카드 납부
ㅁ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033–670–2107

양양웰컴센터 나들쉼터 이용안내

ㅁ 위 치 : 양양읍 양양로 570, 양양웰컴센터 1층
ㅁ 이용대상 : 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
ㅁ 시설현황(면적: 337.04㎡)
– 열린회의실 : PC, 빔프로젝트, 회의용탁자 및 의자
– 충전카페 : 핸드폰고속충전기, 휴게용탁자 및 의자
– 어린이 휴게실 : 유아용 탁자
– 공용시설 : 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TV
ㅁ 이용시간 : 09:00 ~ 18:00(연중무휴)
ㅁ 문 의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670–2886)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안내

1. 주요개정사항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는 때에는 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 · 광고(존재하지 않는 매물 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 과장광고, 그 밖의 광고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 시 행 일 : 2020. 8. 21.(금)
3. 행정처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4. 문 의 처 : 양양군청 허가민원실(지적정보) ☎ 670–2153

2020년 10월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

월별	기 간	접수기간	교 육 내 용
10월	10.05 ~ 09.25. 주간 (화,목) 야간 (월,수,금)	09.21 ~ 09.25.	(주간) 인터넷 서비스 활용(이메일, 블로그 등),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입문 및 활용
			(야간) 스마트폰활용(실생활 앱 활용), ITQ한글, 엑셀(강의 및 실습 병행)

· 장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인원 : 반별15명(선착순) 생활 속 거리두기(코로나19)에 따른 인원 제한
※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소수 신청 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시간 : (주간반) 10:00~12:00(화, 목) / (야간반) 18:30~20:30(월, 수, 금)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 양양군청 홈페이지(www.yangyang.go.kr)
* [분야별정보] – [교육] – [교육신청]
② 전 화 : 033–670–2116
*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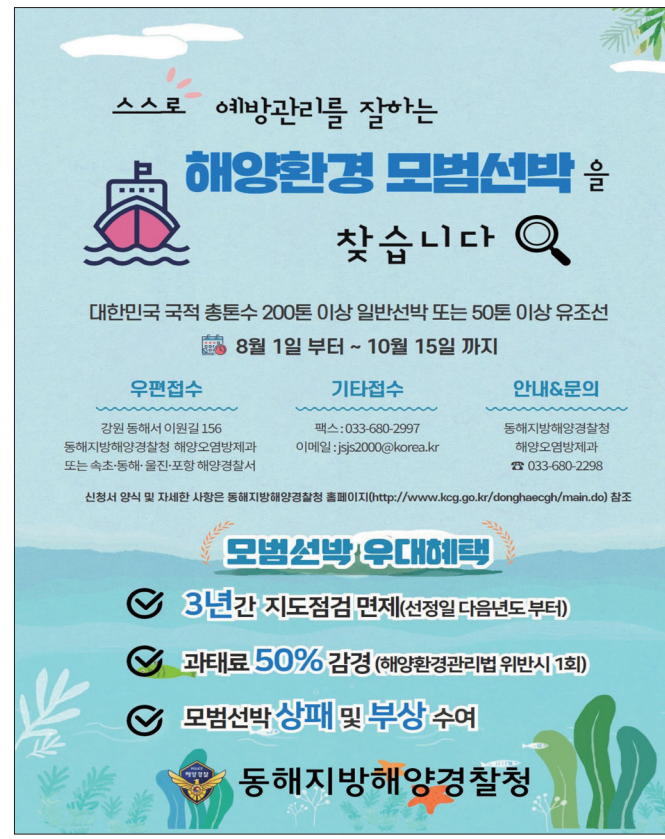
2020년도 하반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ㅁ 신청기간 : 2020. 8. 3 ~ 9.29
ㅁ 신청장소 : 양양군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담당), 읍 · 면사무소
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 ·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ㅁ 지원대상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 가공 · 제조 · 유통 · 수출관련 사업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 · 운영 자금 융자사업
ㅁ 사업당 융자금액 : (개인) 1천만원~3억원, (단체) 5천만원~10억원
ㅁ 융자조건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ㅁ 신청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세부사업별 작성서식 1매
※ 신청서류는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사업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
ㅁ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업정책담당
☎033)670–2701 및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정보꾸러미

출입명부 작성은 이제 그만~

2초만 투자! '클린강원 패스포트'로 편하게 입장하고 혜택도 받으세요!!



2020. 07. 17

질병관리본부
KCDC

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1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2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3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